

2018 사회통합 프로그램 우수운영 학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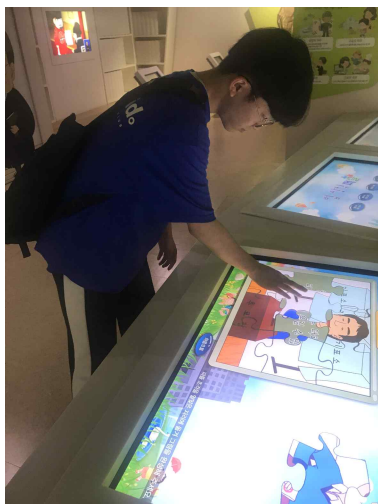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고교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는 매년 사회통합전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평가'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3월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경희고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에도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프로그램 운영 내용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의 경우 적극적이고 학업 태도 및 과제 수행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 학생에 비해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특목고, 자사고 학교에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희고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 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생들이 조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일제 진로의 날

5월 29일 수요일, 1학기 진로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찾아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기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법원전시관&민주인권기념관’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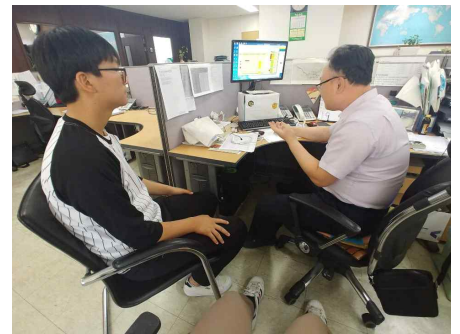
진로체험을 위해 서초구에 있는 법원 전시관과 법원 도서관을 찾았다. 법원 전시관에서 우리나라 최초 법정의 모습과 오늘날의 법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제강점기 법관의 의복부터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기본권의 종류에 관해서도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퀴즈맞히기, 퍼즐맞추기 게임과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서 법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법원에서의 체험 이후 용산에 있

는 민주인권기념관을 찾아갔다. 인권의 기본 개념과 기념관의 역사, 수용소 내부의 실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픈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상생활 속 법의 연관성과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김정현 기자-

세계를 ‘메트로 물류회사’

전일제 진로체험으로 메트로물류 회사를 다녀왔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컨테이너들의 경로를 설정하고, 받는 나라들에게 위치를 알려주



며, 이 컨테이너들의 위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중동아시아로 가는 컨테이너들은 중국에서 출발하여 그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서쪽 또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열차를 사용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담당자를 만났는데, 이 직업이 외국과 의사소통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므로 외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외국어 능력만 된다면 생각보다 편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컨테이너들의 위치들을 상세히 보고 알려줘야 하고 만약 경로가 틀어진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큰 직업 같다는 생각을 했다.

-김근석 기자-

한국 신문 130년의 역사를 한눈에. ‘신문박물관’



광화문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문박물관 PRESSEUM에 다녀왔다. PRESSEUM은 한성순보 창간(1883) 이래 2000년도에 동아일보사가 개관한 곳이다. 신문박물관은 유구한 언론의 역사를 가진 선진 각 구와 함께하는 상징적인 박물관이다.

PRESSEUM은 독자와 청소년에게는 종이매체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 체험의 장으로, 언론과 문화 연구자에게는 다층적인 언론문화 아카이브로 기능한다. 5층 전시실에는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신문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할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세계의 신문들과 신문의 역사, 신문과 사회, 신문과 제작, 기자의 책상, 신문과 문화에 대해 직접 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간은 신문과 문화구간이었다. 이곳에서는 신문이 디자인, 광고, 만화, 사진, 소설 등을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연출해 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6층에는 직접 신문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직접 신문을 제작해보며 우리의 생활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신문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성 기자-

대한민국의 금융을 튼튼하게 '금융감독원'

진로체험의 날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다녀왔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설립되어 1997년 IMF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이 합쳐져 지금의 금융감독원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크게 자본시장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회사 감독감시의 업무를 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그리고 해외에도 사무소가 있다.

돈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금융생활의 대한 일을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으로 때문인지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는 시위를 하는 플랜카드가 여럿 붙어있었는데, 이를 봄으로써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곳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금융관련 진로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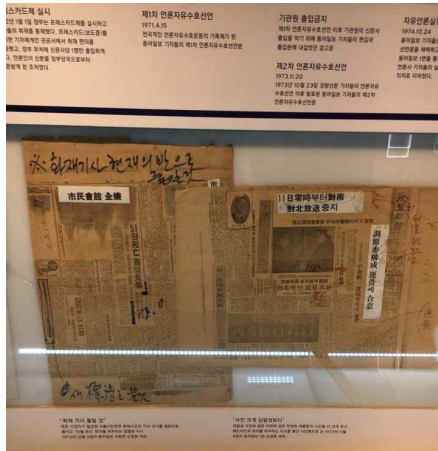
-박승훈 기자-

'헝가리 대사관'



용산구 장문로의 위치하고 있는 헝가리 대사관은 일반 사람들의 집 같이 친근하게 생겼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에서이지 않을까. 대사관에서 처음 들은 내용은 헝가리에 대한 소개만이 아닌 헝가리와 우리나라의 친밀도에 대한 이야기여서 거리낌 없이 듣게 되었다. 또한 대사관 사람이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하기 좋았다.



유럽 공동체, 즉 EU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EU의 생성 이유와 같은 내용을 주를 이루었다. 대사관을 다녀와서 그곳에 있던 분들이 마치 우리들과 같은 나라 사람인 듯 친근하고 좋았으나, 헝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건우 기자-

'학교특강'

진로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강이 열렸다. 이와 2개, 문과 2개 특강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었는데, 나는 정보통계학과와 전기전자공학부, 국제무역학과와 사회학과를 선택했다.



정보통계학과에서는 통계와 관련된 것 내용과 통계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등급, 공부법 등을 가르쳐주어 도움이 되었다. 전기전자공학부

에서는 전기와 전자의 차이, 관련 진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의 공부법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다.

국제무역학과에서는 무역에 대한 이야기, 무역규칙에 관련한 내용을 배웠고, 사회학과에서는 사회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심오하게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경희대학교 이승형 교수님의 IT 관련 강의를 열렸다. 컴퓨터, HW(하드웨어), SW(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앞에 있는 테마 3개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억에 남았다.

-박서진 기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특강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및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안영인 SBS선임기자(이학박사)가 초빙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경희고등학교 의학과정 학생들도 강연을 들었습니다.

지난해는 110여년 지상관측상 가장 더웠던 여름, 39.6까지 올라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폭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폭염의 근본 원인은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뉴스나 피해에 대한 보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보도가 의미하는 것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06년의 50%에도 못 미치는 보도가 있었고 점점 더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2.4도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약 40년 만에 지구는 불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가 증가하는 그래프와 이산화탄소 증가 그래프와 비슷한 것을 들어서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이슈인 환경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호흡기 폐에 쌓이거나 식도로 들어가면 각 장기로도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바다에 침착되어 플랑크톤의 이상증식을 일으켜 대량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 후 죽은 플랑크톤을 분해할 때 산소가 많이 사용되어 바다 속 용존 산소가 줄어들어 '죽음의 바다'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독하다는 보도를 들은 뒤로 환경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휘발유차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시킵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 엄청난 양의 기체들이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들과 같이 자동차나 다른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을 자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덕분에 후대에 살게 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서진 · 손예준 · 송창학 기자-

제 3 청운재 설치

우리 학교 5층에 새로운 교실이 생겼습니다. 3층에 위치해있는 제 1 청운재, 1층에 위치해있는 제 2 청운재에 이어 생긴 '제 3 청운재'로,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자율학습 공간이며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식 블라인드와 의자, 화이트보드 등이 있어 학생들의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치 스터디카페를 연상하게 하는 인테리어가 이곳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자율학습실과는 달리 좌석 간 큰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고, 여러 학생이 길게 앉을 수 있는 긴 책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부에 더 집중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학년 학생들이 이곳에서 더욱 편리한 학교생활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김민성 · 김정현 기자-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군자는 사물을 부리지만 소인은 사물에 부림을 당한다.'

5월 12일 수요일 5, 6교시에 강당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1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의 목적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나타나는 폐해와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아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의미,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이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서 배웠



는데, 학생들이 모두가 자기점검을 통해 자신의 과의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번 교육을 통해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정답이 나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며 의외로 스마트폰에 알게 모르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을 보면 마치 스마트폰에 종속된 듯 잠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군자는 사물을 부리지만 소인은 사물에 부림을 당한다.’ 《순자》 수신 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은 모두 군자로서 어떤 물건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사물을 조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도현 기자-

뇌과학 특강

6월 7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뇌과학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경희고등학교 자율동아리 W.I.B(What Is Biology)에서 주최한 ‘뇌과학 특강’은



‘우리가 만드는 특강’의 일환으로, 강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학생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특강에서는 김성현 교수(경희대학교 의예과)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뇌에서 감각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신경정보의 전달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해마는 우리의 기억을 관장합니다. 이 영역이 제거된 환자는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실제로 자전거 사고로 뇌를 다쳐 외과 수술을 받던 도중 해마를 다친 한 환자의 경우 기억 상실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동 신경 생물학, 뇌과학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강연에는 경희고등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26개 학교에서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관심이 있던 뇌과학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일상 속 뇌과학의 적용 사례를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알림 모니터 설치

3층과 4층에 학생알림모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평소 수학여행이나 각종 행사 등 학생들의 사진이 나오고, 뉴스 속보나 퀴즈가 나오기 합니다. 특히 이번 경희올림픽 패드론으로 찍은 동영상이 송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사진을 보는 것은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퀴즈와 뉴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퀴즈는 친구들의 관심사에서 멀어 맞추고 싶은 의도조차 들지 않았고, 퀴즈의 정답조차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 또한 계속 같은 것만 반복되어 나오고 흥미를 끌 만한 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 점이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실용적이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재구성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수영 기자-

제 24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준우승



경희고등학교 축구부는 지난 6/1~6/12 까지 개최된 무학기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28개의 팀들의 경쟁에서 준우승이라는 큰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희고등학교는 제주제일고등학교, 파주고려FC U-18, 경기고양FC U-18팀들을 만나 팽팽한 경기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본선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첫 본선에서 부산경남공업고등학교를 만나 2:0승리를 가져왔으며, 8강에서는 경남거제고만나 치열한 경기를 하였습니다. 경남거제고와 3:2로 극적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경희고와 거제고의 전술이 비슷해서 타 경기들 보다 상대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음 4강에서는 경남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를 만났는데요, 3:2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한승헌 선수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전경진 선수의 결승골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은 경기용인태성FC U-18 팀과 만났는데요, 결승전답게 보다 팽팽한 경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팽팽하게 경기가 이어가던 중, 전반 27분 태성FC 선수의 득점으로 경기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고의 패널리틱 실책으로 아쉽게 우승을 놓치게 되었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경희고 축구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희고 축구부 학생들에게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준원 · 박승훈 기자-

우수학생을 뽑아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저희가 뽑은 우수학생인 2학년 3반 이승진 학생을 인터뷰하려 하는데요. 현재 이승진 학생은 학생회에 소속되어있으며, 온갖 곳은일에도 항상 열심히 활동하기에 저희가 우수학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자: 이승진 학생, 안녕하세요.

이승진: 네, 안녕하세요.

기 자: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이승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 자: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오자와 야자를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공부를 하시나요?

이승진: 보통... 4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 자: 그러면 쉬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시나요?

이승진: 평소에는 잘 하지는 않지만 시험기간에는 가끔씩 합니다.

기 자: 그렇군요.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계신가요?

이승진: 현재 바이러스 연구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 자: 현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진: 저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 자: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진: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끈기가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사실 끈기 있게 하다보면 못하는 것도 잘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원래 그 분야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자: 그럼 본인이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나, 본인의 약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승진: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체력입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제가 체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달리기와 줄넘기 등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공부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 자: 현재 어느 과이시며 가장 잘하는 과목, 또 그에 대한 공부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승진: 저는 현재 이과이며, 영어를 가장 잘합니다. 저의 영어 공부법은 기출과 지문을 풀고 분석한 후 자신만의 문제를 만들어 푸는 것이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가장 잘되는 것 같습니다.

기 자: 현재 학생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들어갔는지, 들어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승진: 저는 현재 학생회 총무부 소속이고, 학생회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 자: 이상으로 저희가 우수학생으로 선정한 이승진 학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가 물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응해주신 이승진 학생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근석 · 박건우 기자-

만든사람들 교지편집·기자반

- 김도현, 박승훈, 손예준, 송창학, 김민성, 김정현, 김근석, 박건우, 강수영, 김준원, 박서진